



‘개똥녀’ 사건과 인터넷 실명제

노 규 성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 선문대학교교수

“세지 혀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가 하면 “말 한마디가 천 냥 빚을 갚는다”라는 속담도 있다. 일찌감치 말의 위력을 터득한 우리 선조들이 후손들에게 전해주는 교훈과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전되면서 자극적인 용어로 포장한 상업성이 사회를 혼탁하게 하기 시작했다. 신문지상이나 TV뉴스는 연일 자극적인 용어와 발언을 쏟아낸다. 극단적인 경쟁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독자와 시청자가 흥미를 갖지 않아서인가? 이러한 경향 때문에 우리 모두는 자극적인 단어에 길들여지고 있으며 더 자극적이고 더 폭력적이야 관심을 가지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인터넷 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폭력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우리 사회에 인터넷이 소개된 이래 인터넷은 핸드폰과 함께 생활필수품이 되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로서 우리 생활과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작용하였다. 패러다임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온다. 동시에 그 이면에서 자라고 있는 비윤리적 행위와 언어가 독버섯처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에 대한 무방비, 원조교제나 성매매 유혹, 부부교환성행위 등 성 문란 조장, 폭력과 자살 방조, 특정인에 대한 모욕이나 비방, 스팸메일이나 혐오 메일의 발송, 온라인 사기 등 범죄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가 수위를 넘고 있다. 더구나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채팅용어(비어)는 학생들뿐 아니라 어린이에게까지 심각한 언어장애를 유발시킬 정도이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가 기술을 부리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먼저, 인터넷관련 기술의 발전이 윤리문제의 의식과 발견,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을 빠르게 앞서가기 때문이다. 둘째, 인터넷에서의 디지털 정보는 엄청난 속도로 유통될 뿐 아니라 일반적인 유포와

복제, 활용 및 대량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를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으로서 대량의 정보를 더 광범위하게 유통할 수 있게 해 주었기 때문이다. 넷째, 인터넷에 의해 형성된 사이버공간상에서의 익명성과 간접적인 인간관계 증대에 따라 특정 혹은 불특정다수의 인간을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기술 및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로 정보의 격차에 따른 빈부의 격차 심화, 책임소재의 불분명 등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 속성을 가진 인터넷은 광범위한 익명성의 사소통도구이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자신을 밝히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익명성은 유용한 도구를 폭력도구로 만들 수 있다.

최근에 야기된 ‘연애인 X과일’, ‘트위스트 김’ 사건, ‘개똥녀’ 사건 등은 전형적인 인터넷 폭력사건이다. 그 중 ‘개똥녀’ 사건은 지하철에 안고 탄 애완견이 바닥에 배설을 했음에도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그냥 내린 한 여성에게 네티즌들이 ‘개똥녀’라는 이름으로 사이버공간에서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나서면서 발생되었다.

이 여성이 보여준 행위는 문명화되면서 체내화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요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흐름이 자유와 민주라는 미명 아래 극도의 비윤리적 개인주의로 흐른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사소한 비윤리 문제는 그 구성원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용인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의 행위는 공공장소에서의 최소한의 윤리를 저해한 행위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그 여성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와 인터넷을 통해 그 여성에게 한 인권침해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다. 마녀사냥식으로 한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

하여 자살직전까지 몰고 간 이 사건은 사이버공간에서 야기되고 있는도끼문어식어론재판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사건은 익명의 어둠속에 숨어 한 여성을 괴롭히고 비방하는 사이버 테러로서 윤리적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이 사건은 아무리 자유를 존중한다고 해도 사이버공간을 더 이상 ‘익명의 무방비 자유지대’로 남겨 둘 수만은 없다는 공감대를 확산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그간 간헐적으로 논의되어 온 인터넷 실명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의 제시와 논쟁이 시작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이 비윤리적 사이버폭력의 수위가 심각한 상황에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형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매마침 정보통신부는 최근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를 공론화하였다. ‘순수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해 ‘인터넷게시판 실명 표시제’, ‘인터넷게시판 실명 확인제’, ‘실명 게시판 우대제’ 등 정부부가 제안한 4가지



방안은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쳐 논의하고 잘만 다듬는다면 인터넷비윤리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정보통신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정보서비스가 매일 매일 우리에게 선보인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그리고 통신과 방송이 융합되는 기술적 배경에서 각종 정보가 붓물처럼 쏟아질 것이다. 생활과 문화에 유익한 다양한 콘텐츠가 쌍방향으로 송수신되면서 우리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높게 할 것이다.

그러나 밝은 미래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덩달아 따라온다. 모두가 콘텐츠 제공자가 될 수 있는 쌍방향 참여형 환경에서 누구도 모르는 비윤리적 콘텐츠가 횡행할지 모른다. 장차 DMB 서비스에 쌍방향 혹은 사용자가 직접 만든 콘텐츠를 방송망에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개똥녀’ 사건보다 더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특정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만들어 여론을 조작할 수도 있고 몰래카메라를 능가하는 몰래비디오로 촬영한 개인의 사생활 동영상도 방송망을 통해 유포될 수도 있다. 그야말로 유비쿼터스 시대에 우려되는 인권 침해는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의 정체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비윤리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향후에도 정부가 법·제도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차단하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발전하는 기술이 주는 효익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 공간에서 문화적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윤리 의식에 대한 이해와 자생적 윤리문화 형성을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